

뉴질랜드, 중국에 대규모 젖소목장 투자 확대

뉴질랜드 최대 낙농조합인 폰테라사는 중국 허베이성에 착유우 3천두 규모의 대규모 목장추가 설립을 확정하고 최근 중국 지방정부와 투자 협정을 맺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허베이성 유티안시에 설립되는 이 목장에는 3천1백만달라가 투자될 예정인데 42ha의 부지에 12개의 후리스틀우사가 신축되며 24시간 착유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구비되고 100여명의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폰테라사는 지난 '07년 인근 한구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젖소 목장을 설립하여 6천두의 젖소를 사육하며 연간 2천5백만L의 우유를 생산 인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젖소 교잡우 소비자 인식 낮으나 품질 호평

일본 젖소와 화우를 교잡한 교잡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낮으나 먹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품질평가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식육 소비종합 센터는 최근 약 2천여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잡종 쇠고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교잡종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45.1%인 반면 화우는 95%, 젖소는 82.1%로 나타나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먹어본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73%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판매점에서는 80%가 맛과 품질이 좋아 호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에서 교잡종 쇠고기 판매시 교잡소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27.3%에 불과하고 반수 이상의 판매점이 국산소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학교급식용 자국산 우유 공급 확대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학교급식용 자국산 우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말레이시아 부총리이며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된 우유급식프로그램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최대 유업체인 '사바'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역의 310만명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연간 200밀리 우유 2억 7천만개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계획은 보건부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성이 확보된 우유공급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인도, 최대 협동조합 뉴질랜드 젖소 4만두 도입

인도의 최대 협동조합중 하나인 '이피코'는 뉴질랜드 최대 낙농조합인 폰테라사와 함께 약 4만두의 젖소를 도입하여 인도 동부 안드라 프라데쉬주 인근에 대규모 젖소 목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이피코'는 45%의 지분을 가지며 폰테라사는 35% 지분, 다른 인도 식품회사인 '글로벌 데어리'사가 2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정부는 최근 프랑스 정부와 낙농 및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09년 현재 프랑스로부터 가축 사료, 채소 종자등 4천 1백만불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번째 송아지 출산 홀스타인 젖소 화제

뉴질랜드에서 최근 홀스타인 젖소가 20번째 송아지를 출산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름이 '그랜드마'인 올해 22살인 이 젖소는 '88년생'으로 통상 5~6세에 2~3마리의 송아지를 낳고 도태되는 일반 젖소에 비해 10배의 송아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0ha의 넓은 초지에 850두의 젖소를 기르는 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이 소는 유명 종모우인 '무스탕'의 자손으로 19번째 송아지는 방목을 하는 중 훨씬 어린 헤어포드종과의 사이에서 교잡우를 생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알라바마 대학 연구에 의하면 젖소의 1년은 인간의 생리적 나이로는 4년에 해당되어 사람나이로는 88세에 분만하여 더욱 화제가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